

# K리그 연착륙 광주FC 최경록 “올해 더 강해진다”



태국 코사무이에서 동계훈련 중인 광주FC의 최경록이 마릴레이나 스포츠 리조트 축구장에서 슈팅 연습을 하고 있다.



광주FC  
동계훈련

태국 코사무이=김여울 기자

“진짜 최경록을 보여주겠습니다.”

광주FC의 미드필더 최경록이 100%를 목표로 2025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최경록은 독일에서 10년간 활약을 펼친 뒤 지난 시즌 아주대 시절 은사인 이정효 감독이 있는 광주로 이적했다.

K리그에서는 ‘신입생’이었던 그는 첫해 34경기에 나와 3골 2도움을 올렸다. 팀 코리아컵 준결승에 진출했고 아시아챔피언스리그까지 소화했던 만큼 정신 없이 흘러갔던 시즌이었다.

광주와 재계약을 하고 두 번째 시즌을 기다리고 있는 최경록은 “정말 한 시즌이 빨리 지나간 것 같다. 처음 K리그를 접하다 보니까 모든 게 새로웠다. 제일 크게 느낀 게 날씨다. 여름 날씨가 진짜 힘들었다(웃음). 그런 부분도 많이 배우고 느꼈다. 다가올 여름이 두렵기는 한데, 대비를 잘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해외에서 오래 해서 적응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같은 언어를 쓴다는 게 달랐다. 같은 언어로 소통할 때 느껴지는 에너지가 달랐다. 팀원들도 너무 잘 해줬다. 해외에서의 경험을 많이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잘 됐던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직접 느낀 K리그는 강렬했고, 광주 축구는 재미 있었다.

최경록은 “쉽지 않은 리그였고, 왜 아시아에서 손

독일에서 10년간 활약... 지난 시즌 은사 이정효 감독과 재회  
“2004년 시즌 내 점수는 ‘40점’... 파괴력 있는 모습 보이겠다”

에 꼽히는 리그인지도 느꼈다. 용병 선수들을 주축으로 하는 팀들을 봤을 때 정말 위협적이었고 선수들, 개인 기량이 너무나 뛰어나았다”고 K리그를 이야기한 최경록은 “재미있었다. 우여곡절이 많았다. 처음에 연습하다 6연패하고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이 재미있었다. 과정은 좋았지만 결과가 따라오지 않은 것은 아쉽다”며 광주 축구를 이야기했다.

최경록은 바쁘게 흘러갔던 자신의 첫 시즌에 ‘40점’이라는 잔 점수를 줬다. 다 보여주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다.

최경록은 “괜찮은 첫 발이었지만 만족한 시즌은 절대 아니다. 점수로 매기면 40점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토대로 팀을 위해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했다. 더 잘할 수 있었고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던 부분도 있었다. 좋았던 점을 더 부각시켜야 할 것 같다. 공격수니까 포인트에서 팀을 도와야 한다. 공을 잡았을 때 쉽게 연계 플레이도 좋지만, 한두 명을 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정점을 극대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쉬움 속에서도 옛 스승 이정효 감독을 만나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빈 점은 만족스럽다.

최경록은 “아쉬운 시즌이었지만 부상 없이 40경기 정도를 소화했던 것은 만족스럽다. 감독님께서 믿고 기용해 주신 부분에 감사하다”며 “감독님에게 축구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적인 태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절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배웠다. 그냥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배웠던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이정효 감독은 경기장 밖에서는 정 많은 큰 형이지만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리면 맹수로 돌변한다. 거친 말을 쏟아내기도 하지만 최경록은 이정효 감독의 ‘순수한 열정’이라고 말한다.

최경록은 “우리도 놀란다(웃음). 육박하면 힘들다. 그런데 감독님이 정말 순수하시다. 축구에 대한 열정을 보면 정말 순수하시고, 그런 순수함이 있으니까 이런 혁신적인 것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감독님을 정말 좋아한다”며 “감독님께서 미워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더 잘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하시는 말씀이라, 받아들이고 자기 안에서 그런 것을 소화시키면 더 좋은 쪽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최경록은 올 시즌에는 많은 욕심을 내면서 팀을 더 높은 곳에 올려놓겠다는 각오다.

최경록은 “올해는 욕심내야 한다. 욕심낼 것이다. 더 많이 이기고 싶고, 공격 포인트를 많이 쌓고 싶다. 지난 시즌보다 더 많이 쌓고 싶다”며 “우선 매 경기 목표는 승리니까 이타적인 플레이는 무조건 가져가면서도 파괴적인 모습, 일대일에서 찬스만 들어내는 부분을 더 보여드리겠다. 부상 없이 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몸 관리 잘하고, 잘 준비해서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게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페퍼스, 도로공사 상대 연패 끊을까

V리그 1월 4주차 관전포인트

23일 홈서 격돌... 승점 5점차 쫓겨  
‘11연승’ 정관장 상위권 도약 관심  
‘13연승’ 현대캐피탈 누가 막을까

프로배구 남녀부의 불꽃은 선두권 경쟁과 새로운 역사 작성으로 V리그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먼저, 장단 이래 처음으로 3연승을 거두며 ‘막내의 반란’을 알렸던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의 연패 탈출 여부가 관심사다.

페퍼스는 지난 19일 4라운드 GS칼텍스 서울 Kixx와의 경기에서 셋아웃 패배를 당했다.

이번 시즌 ‘구단 최다 8승’과 ‘구단 최다 4연승’을 달성하고 직전 흥국생명전에서는 폴세트까지 끌고 가는 등 공·수 양면에서 상승세를 보이던 페퍼스는 이날 2세트에서는 8연속, 3세트에서는 6연속 실점을 허용하며 흔들렸다.

특히 외국인선수 테일러가 팀 최다 12득점으로 유일한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고, 주포 박정아가 1득점에 범실 2개를 내면서 크게 부진했다.

페퍼스가 오는 23일 홈에서 승점 5점 차로 따라붙고 있는 6위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를 상대로 연패 탈출에 성공할 지 관심사다.

V리그 순위 싸움에 세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정관장 레드스파이크스는 최근 11연승을 질주하며 상위권 꼬리잡기에 나섰다.

3위 정관장(15승 6패·승점 41)은 1위 흥국생명(16승 5패·승점 47)과의 격차는 승점 6, 2위 현대



지난 19일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 박정아가 GS칼텍스 서울Kixx와의 경기에서 블로킹하고 있다.

〈KOVO 제공〉

건설(15승 6패·승점 46)과 ‘승점 5’ 차이다.

지난해 11월 30일 IBK기업은행 알토스에 거둔 셋아웃 승을 시작으로 연승가도에 오른 정관장은 아시아쿼터 메가와 외국인선수 부키리치의 ‘쌍포’를 앞세워 어느새 흥국생명과 현대건설로 굳어진 ‘양강 구도’를 위협하고 있다. 정관장은 오는 22일 현대건설과의 맞대결을 통해 ‘2위 잡기’에 나선다.

한편, ‘천하무적’일 줄만 알았던 흥국생명이 외국인 선수 투트쿠의 부상 이후 공수가 흔들리자 2위 현대건설이 승점 1점 차로 턱 밑까지 추격하면서 여자부 상위권 순위표가 혼돈으로 치달고 있다.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는 ‘남녀부 통산 최다 연승’을 노린다.

남자부 ‘1위’ 현대캐피탈(20승 2패·승점 58)은

지난 19일 열린 KB손해보험 스타즈와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1로 승리하고 연승 기록을 ‘13’으로 늘렸다. 2위 대한항공(13승 8패·승점 43)이 승점 15 차이로 뒤쫓고 있지만 아직 여유롭다.

현대캐피탈은 지난 2015-2016시즌 이후 9년 만에 13연승을 이뤘다. 현대캐피탈의 역대 최다 연승 기록도 지난 2015-2016시즌에 달성한 ‘18연승’으로, 이는 V리그 남녀부 통산 최다 연승 기록 ‘1위’다.

레오-허수봉-신명 견고한 삼각편대를 주축으로 9년 만에 구단 자체 기록 경신에 도전하는 현대캐피탈은 오는 24일 오후 7시 수원체육관에서 6위 한국전력 빅스톰(8승 13패·승점 20)을 상대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광주FC 캐치프레이즈 LET'S SHINE GWANGJU

광주FC가 ‘LET'S SHINE GWANGJU’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2025시즌을 달린다. 광주는 20일 올 시즌 캐치프레이즈를 발표했다. 구단의 정체성인 ‘빛’을 표현한 새로운 캐치프레이즈 ‘LET'S SHINE GWANGJU’는 광주의 모든 영광은 하나의 빛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팬들과 빛나는 순간을 함께 하면서 K리그와 ACLE 무대에서 광주만의 찬란한 빛을 발하겠다. 광주의 각오도 엿볼 수 있다.

광주는 캐치프레이즈 ‘LET'S SHINE GWANGJU’를 각종 구단 제작물과 MD 상품에 삽입하고, 경기장 브랜드 및 SNS 이미지 등에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여울 기자 wool@

## 전남도청 박소형, 펜싱 국가대표 선발전 우승

전국남녀종목별오픈펜싱선수권

전남도청 박소형(사진)이 ‘2025 전국남녀종목별오픈펜싱선수권 겸 국가대표선발전’에서 여자 에페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박소형은 이번 대회 여자 에페 개인전 16강과 8강에서 같은팀 김향은과 김태희(이상 전남도청)에 각각 15-11, 13-8로 승리하며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 송세라(부산시청)와 접전 끝에 13-12로 승리한 박소형은 결승에서 이신희(강원도청)를 상대로 11-10 승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전수인(전남도청)은 사브르 여자 개인전 3위를 기록했다.

전수인은 사브르 여자 개인전 16강에서 양예솔(인천중구청)을 15-13으로, 8강에서 윤소연(대전시청)을 15-8로 제압하고 준결승에 올랐고 김정미(안산시청)에게 6-15로 패했다.



전남도청 김용을 감독은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투지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시작이 너무도 좋다. 이번 대회를 통해 자신감을 얻은 우리선수들이 다음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익산실내체육관에서 개막한 이번 대회는 21일까지 진행된다. /김진아 기자 jinggi@

## 전남 ‘에이스’ 발디비아, 외국인 첫 주장

전남드래곤즈의 ‘에이스’ 발디비아가 팀의 첫 외국인 선수 주장으로 승격 전면에 선다.

전남은 2025시즌 주장으로 발디비아를 선임했다. 김경재, 김예성, 박태용은 부주장으로 발디비아를 보좌한다.

2023시즌 전남 유니폼을 입은 발디비아는 첫 해 14득점 14도움을 기록하면서 팀 에이스로 등극했다. 또 올해 K리그2 MVP 트로피도 들어 올렸다.

특급 활약을 이어가면서 ‘광양 예수’로 불리고 있는 발디비아는 구단 창단 31년 역사상 처음으로 정식 선임된 외국인 주장이라는 타이틀도 얻었다.

지난 2년 몇 차례 주장 완장을 찼던 발디비아는 올 시즌에는 정식 주장으로 선수단 전면에 선다.

구단과 김현석 감독의 신뢰 속에 주장이 된 발디비아는 “주장으로 선임돼 기쁘고 감사하다. 책임감

이 막중한 위치지만, 팀을 위해 돕고 싶은 마음이 크고 잘 해내고 싶다. 세정야(대구FC)나 안텔손(포항스틸러스)처럼 나와 같은 브라질 출신 선수들이 K리그 팀에서 주장 역할을 잘 해낸 것처럼 팀을 위해 헌신하고 잘 이끌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부주장으로는 김경재(31), 김예성(28), 박태용(23)이 선임됐다. 베테랑부터 신예 선수들까지 하나로 묶어 ‘원팀’으로 갈 수 있게 나이대별로 부주장을 맡았다.

김경재는 “7년 만에 베테랑이 돼 전남에 돌아왔는데, 부주장직을 맡아서 책임감이 막중하다. 예성, 태용이와 주장 발디비아를 잘 도와서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의 가교 역할을 하고, 팬들과 선수단이 염원하는 K리그 승격을 이루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남은 지난 16일 태국 방콕에서 2차 동계 훈련을 진행하면서 2025시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서울이랜드와 연습경기도 진행했다. 동계훈련 첫 연습경기에서는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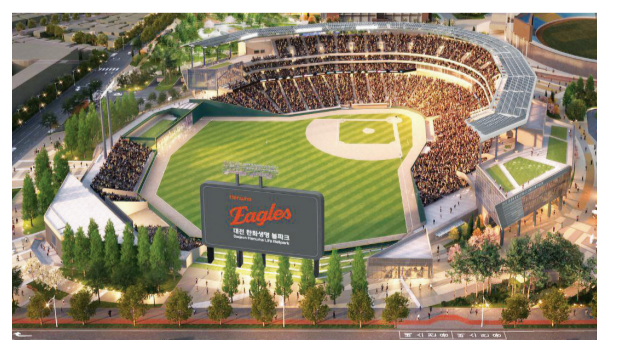
## 3월 28일 KIA와 홈 개막전

프로야구 한화이글스가 2025시즌부터 새로 사용하는 홈 경기장 명칭이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사진)로 정해졌다.

한화는 20일 “지난해 팬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를 새 홈 경기장 이름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한화 구단은 “대전 홈구장을 찾아주시는 팬들에게 보답한다는 의미로 ‘대전’을 넣었고, 야구장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고, 복합 문화 공간을 의미하는 측면에서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를 신축 홈 경기장 명칭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화는 한화생명과 25년간 네이밍라이츠 스폰서십 계약을 맺었고,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가 새



겨진 외부 대형간판을 세우기로 했다.

한화는 2024시즌까지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를 홈 경기장으로 사용했고, 올해부터 2만여석 규모의 새 경기장에 동지를 쓴다.

정규리그 홈 개막전은 3월 28일 KIA 타이거즈와 경기로 열리며 올해 7월 올스타전도 대전에서 펼쳐진다. 개장식은 3월 6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다. /연합뉴스